

국민의힘 자중지란에 민주당 표정관리

뉴스 현장

이재명·윤석열 선대위 희비

국민의힘 통합 보름만에 다시 파국

윤석열 후보 경쟁력에 악영향

민주 단일대오 중도층 공략 가속

'내부 분열'이 내년 대선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내홍을 둘러싸고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룡 선대위를 재조정하며 점차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사퇴하는 등 다시 막장으로 가는 형국이다. 내년 대선이 5% 내외 박빙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내부 결집과 분열 여부는 정권 향배의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 대표는 21일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이 이 대표는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을 겸임해왔다. 선대위 직책에서 사퇴해도 당 대표직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선대위원장 인선과 내부 권력 구도 등을 놓고 갈등을 빚다 간신히 통합됐던 국민의힘 선대위는 다시 흔들리게 됐다. 이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공보단장의 충돌 사태와 관련, "당사자들끼리 오해를 풀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 정도로는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인 김건희씨의 경력 부풀리기에 대한 민심의 눈초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선대위마저 흔들리면서 윤 후보의 리더십 문제까지 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대표 패싱 논란'으로 이

대표가 윤 후보 측과 충돌, 당무를 거부하고 부산과 여수, 제주 등 지방에 머물렀을 당시, 윤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출렁이며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권정당의 자세와 정권 교체의 절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선대위의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밖에서는 선대위가 '항공모함'에 비유될 정도로 거대하게 만들어졌는데, 효율적이지 않아 이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대위를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는 인사는 앞으로 과감히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선대위 개편이 과연 화학적 결합을 이뤄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과 선대위의 권력 구도가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윤 후보가 전면에서 나서 이번 사태 수습은 물론 선대위 개편을 주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사태를 바라보는 민주당은 표정 관리에 나서서 모습이다. 국민의힘의 분열은 결국 민주당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은 공룡 선대위 파동을 겪으면서 어느 정도 내부 결집을 이룬 상황이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의 전면적인 선대위 합류 등 아직까지 100% 내부 결집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점차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 가는 형국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부 이견을 최소화, 단일대오로 중도층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의 부동산 세제 관련 당정 협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내부 분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인, 이준석, 김병준, 김한길 등 사공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안에 대해 중구난방식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확산 등의 악재 속에서도 국민의힘 분열을 계기로 대선 승기를 잡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은 결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내년 대선까지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어느 진영이 진정성을 토대로 결집하고 미래 비전을 보이느냐가 대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의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이번 대담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 국민참여단 현장 패널 15명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샌델 교수 만난 이재명 "성장으로 능력주의 부작용 극복"

공정 이슈 띄우기 화상 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1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을 통해 '공정' 이슈 부각에 나섰다. 자신의 경제 성장 전략인 '전환적 공정성장'의 주요 개념인 '공정성'을 강조하며 정책-비전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최근 부인 김건희씨의 이력 논란 등으로 위기에 몰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부터 공정 이슈의 주도권 빼앗기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샌델 교수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온라인 화상 대담을 했다.

이날 그는 샌델 교수가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다룬 능력주의 비판과 자신의 경제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의 융합을 시도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능력주의의 단점이 힘을 얻는 현상은 그 자체로 인정하면서, 그 근본 원인은 저성장이라며 경제 성장 정책으로 부작용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성 할당제, 지역 할당제, 취약계층 할당제 등 예외적 보호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평창 아이스하키 선수 몇 명을 북한에 배정하니 젊은이들이 반발한 것에 기성세대들은 '왜 그러느냐' 했는데,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 하나 구하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데 누구는 갑자기 국가 정책에 의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정서가 인공국 때 나타났다"며 "청년세대가 얼마나 어려움을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 보고 공감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올해 추가세수가 5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특정 기업이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린 것"이라며 "반대로 다수 서민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다. 국가의 대대적 역할을 통해 정의롭게 모두가 전환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병상 확보에 국민들 생명 달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관건은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이다.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병상확충 계획에 더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해 병상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 인력도 조속히 확충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병상의 확보에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다"며 "일상회복이

늦어질 수록 민생의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점도 명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해주고 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모든 의료 역량이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예상치 못한 난관에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다"며 "하지만 시민이 성공을 만들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전 부처가 한 몸이 돼 비상한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발 물러선 이재명 "다주택자 증과세 유예 선거후에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유예에 대해 "정부와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몇 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 화상 대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한시 유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거나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

라고도 언급했다.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현재 정부가 반대하고 당내에도 이견이 많이 제기되자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청와대가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양도세 증과 유예론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현 상태로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는 앞으로 필요하지만, 그 최종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주거용도 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책은 정책 결정자의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이날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공직자의 가족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매우 높고 엄격해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책임지는 자세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